

치과위생사의 직업기대에 관한 연구

황미영 · 오혜영 · 원복연¹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A study on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Mi-Yeong Hwang · Hye-Young Oh · Bok-Yeon Won¹

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 ¹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Received : 30 August, 2012
Revised : 10 December, 2012
Accepted : 10 December, 2012

Corresponding Author

Mi-Yeong Hw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Cheoncheon-ro 74 Beon-gil(Rd),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Tel : +82-31-249-6501, +82-10-3715-8888
Fax : +82-31-249-6500
E-mail : hmy5744@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association with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through correlation between curricular subjects for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job.

Methods : It carried out convenience sampling of dental hospitals where are located in Capital Area, and then conduc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274 dental hygienists who are working here. The statistical program was analyzed by using PSAW 18.0.

Results : Research subjects' 60.2% experienced turnover. Its reason accounted for 31.7% with the working con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 in experience of turnover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working form,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age, marriage, annual salary, working institution, and career. In consequence of confirming association between curricular subjects and job, the majority showed high correlation. However, the correlation with oral physiology, clinical dental hygiene, and dental clinics showed low correlation as the insignificant variable.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curricular subjects and job can be considered to reflect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On the other hand, the working condition, professional sense, and turnover experience, which are factors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were indicated to fail to meet job expectation.

Keyword : curricular subjects awareness, job expectation

색인 : 교과목 인식, 직업기대

1. 서론

직업이란 자기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본인의 전공과 능력을 토대로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이나 활동을 말하며 직업기대(Career expect)란 전공이나 직업선택에 대해 느끼고 있는 조직에 대한 확신 또는 잠정적 이해 정도를 말한다¹⁾. 따라서 구성원은 조직으로 하여금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때 최선을 다하고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²⁾.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을 위한 업무 외에도 진료협조 업무에서 환자관리 및 상담, 병원관리업무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비중 있는 인력에 속한다³⁾.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량과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4,7)}. 이직은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남아있는 구성원에게는 업무과다와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조직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감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⁸⁾에 따르면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선택요인 중 안정성(30.4%)이나 수입(36.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높은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전문직으로서 비교적 취업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7년⁹⁾으로 동일 의료기사의 타 직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⁰⁾. 김 등¹¹⁾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인력의 인력난과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직에 영향요인을 밝히는 많은 연구^{4,7)}에서도 스트레스나 직무만족, 자기성장성, 급여요인 등 직무관련 또는 직무환경 요인이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 등¹²⁾은 소비자만족 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이론을 들어 치과위생사가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대하는 업무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예방업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대하는 업무와 수행하는 업무의 격차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¹³⁾. 따라서 기대하는 업무와 수

행하는 업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대한치과위생사 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 잇몸병 및 충치예방을 위한 예방치과 처치자, 치과진료 협조자, 병원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치위생(학)과의 교육 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임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직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더불어 교수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진료보조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임상현실은 임상현장실습에 서부터 과리되기 시작 한다¹⁵⁾.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임상에 취업 했을 때에는 단순 진료보조업무에 치중되어 학교 교육을 통해 쌓아왔던 직무에 대한 기대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직무의 차이로 인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¹⁶⁾. 이러한 임상과 학교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교과목간의 직무관련 인식의 상관성과 치과위생사의 직업기대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직업기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치과의료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27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¹⁷⁾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설문으로 시행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직무관련 특성 3문항, 근무 조건에 관한 5문항, 이직 및 직업의식에 관한 10문항 이며, 20개 교과목에 대한 인식으로 업무관련, 업무수행, 업무비중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인식은 Likert 5점 척도인 '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과목별 인식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교과목 인식의 신뢰도는 업무관련 Cronbach's $\alpha = 0.906$, 업무수행 Cronbach's $\alpha = 0.896$, 업무비중 Cronbach's $\alpha = 0.901$ 이었다.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해부생리학, 생화학 및 영양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은 '구강생리학'으로, 구강해부학 및 실습, 치아형태학 및 실습, 구강조직학 및 발생학, 구강병리학은 '구강생물학'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학 및 실습,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은 '공중구강보건학', 임상치위생학 실습과 임상실습은 '임상 치위생학'으로, 치과임상기초 및 실습, 치주학, 구강방사선학 및 실습, 치과재료학 실습은 '치과임상학', 치과병·의원 관리학, 치과건강보험학 및 실습, 의료관계법규 및 실습, 치위생연구방법론 및 실습은 '치과의료관리학'으로 구분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PSAW 18.0 for windows program(SPSS Inc,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근무조건, 이직 및 직업의식에 관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개인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하였다. 교과목과 직무관련 인식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개인적 특성 및 직업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은 25~30세 미만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미만이 26.6%, 30~35세가 19.7%, 35세 이상은 4.7%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로는 76.6%가 미혼이었다. 학력으로는 3년제 대학 졸업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은 12.4%였다.

직무관련 특성으로 치과위생사 근무경력은 4-7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이 22.6%였으며 10년 이상은 11.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51.8%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2%가 네트워크 치과, 16.8%가 치과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3.2. 근무조건

근무조건으로 현 직장 연봉과 급여 만족 유무, 야간진료 유무, 휴무형태, 휴무형태에 대한 생각은 <Table 2>와 같다. 연봉으로는 2000~25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이 11.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급여에 대해 만족 하는가에 대해서는 82.3%가 불만족으로 대부분 만족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25	73	26.6
	25-30	134	48.9
	30-35	54	19.7
	more than 35	13	4.7
marriage	married	64	23.4
	unmarried	210	76.6
education	junior college(2year)	18	6.6
	junior college(3year)	214	78.1
	university(4year)	34	12.4
	graduate	3	1.1
	others	5	1.8
career	<1 year	37	13.5
	1-3	62	22.6
	4-7	101	36.9
	7-10	42	15.3
	more than 10	32	11.7
working institution	dental clinic	142	51.8
	dental Network	80	29.2
	dental hospital	46	16.8
	others	6	2.2

Table 2. Working conditions of dental hygienist

Classification		N	%
annual income	<2000	55	20,2
	2000-2500	113	41,5
	2500-3000	72	26,5
	more than 3000	32	11,8
pay	satisfaction	48	17,7
	dissatisfaction	223	82,3
night work	yes	150	54,7
	no	124	45,3
closing condition (multiple-response)	5 days	116	27,8
	every month	81	19,4
	every year	78	18,7
	every other week	63	15,1
	moning or afternoon	56	13,4
	not closing	12	2,9
	others	11	2,6
thought about closing	satisfaction	89	33,1
	dissatisfaction	180	66,9

하지 않고 있었다. 야간진료는 54.7%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형태로는 주 5일제 근무가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차 19.4%, 년차 18.7% 순으로 나타났다. 휴무형태에 대해서는 66.9%가 만족하지 않았다.

3.3. 이직경험 및 사유

연구대상자의 60.2%가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직 횟수로는 1회가 41.2%였고 2회가 28.5%였으며 5회 이상은 5.5%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로는 근무조건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13.2%가 급여조건, 동료와의 관계가 9.2%였으며, 규모 있는 곳으로 이동이 6.3%, 치과의사와의 관계가 5.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urnover experience and reason

Classification		N	%
turnover experience	yes	165	60,2
turnover frequency	no	109	39,8
	1	68	41,2
	2	47	28,5
	3	31	18,8
	4	10	6,1
	more than 5	9	5,5
turnover reason (multiple-response)	job condition	96	31,7
	pay condition	40	13,2
	relationship of coworker	28	9,2
	movement for the large scale	19	6,3
	relationship of dentist	18	5,9
	gratify one's ego	17	5,6
	delivery	15	5,0
	leisure	14	4,6
	health	12	4,0
	studies	12	4,0
	marriage	11	3,6
household	3	1,0	
others	18	5,9	

Table 4. Work of clinical(multiple-response)

Classification		N	%
performance work	assistant	209	37.3
	scaling	148	26.4
	counsel and dental health education	74	13.2
	receive and receipt	47	8.4
	insurance demand	30	5.3
	administration	27	4.8
	fluoride application and pit and fissure sealing	15	2.7
	others	11	2.0
hope work	counsel and dental health education	157	31.2
	insurance demand	84	16.7
	assistant	73	14.5
	administration	68	13.5
	receive and receipt	49	9.7
	scaling	34	6.8
	fluoride application and pit and fissure sealing	24	4.8
	others	14	2.8

Table 5. Professional of dental hygienist

Classification		N	%
Occupational life	long	76	27.7
	short	198	72.3
A reason for being thought to be long (Multi-response)	profession	69	48.6
	many places for employment	38	26.8
	stable pay	14	9.9
	suitable for aptitude	8	5.6
	good working condition	5	3.5
	developmental potentiality is big	4	2.8
	social awareness is high	2	1.4
	available for self-realization	1	0.7
	others	1	0.7
A reason for being thought to be short (Multi-response)	small in job offering with high career	127	32.7
	limitation to promotion	57	14.7
	age requirement	51	13.1
	hard job	45	11.6
	poor working condition	37	9.5
	small salary	25	6.4
	unreasonable in light of health	25	6.4
	unable to achieve self-realization	20	5.2
others	1	0.4	
Intention of working as dental hygienist	until being economically stable	100	37.2
	up to the retirement age	52	19.3
	until before childbirth	41	15.2
	until before pregnancy	33	12.3
	until before marriage	21	7.8
	others	22	8.2

3.4. 임상에서의 업무수행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기대하는 업무를 조사하였다. 수행업무로는 진료협조가 37.3%로 가장 많았고 치석제거가 26.4%,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13.2%), 접수 및 진료비 수납(8.4%), 보험청구(5.3%), 행정(4.8%),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업무는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청구(16.7%), 진료협조(14.5%), 행정(13.5%), 접수 및 진료비 수납(9.7%), 치석제거(6.8%),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4.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직업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이 35.5%가 길다고 하였으며 64.5%가 짧다고 생각하였다. 길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48.6%가 전문직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할 때가 많아서가 26.8%, 안정적인 급여가 9.9% 등으로 나타났다. 짧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높은 연차

구인이 적어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14.7%가 승진이 한계가 있어서, 나이제한이 있어서 13.1%, 힘든 직업이어서 11.6%, 열악한 근무조건이 9.5%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19.3%가 정년 때까지라고 응답하였다(Table 5).

3.6. 개인적 특성과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이직 여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직무관련특성에 따라 이직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결혼유무, 치과위생사 근무경력, 연봉,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5세 미만의 경우가 이직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혼인 경우가 이직경험이 더 많았으며, 1년 미만의 치과위생사 경력이 이직경험이 적었다. 연봉은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치과의원이 이직경험이 많았다(Table 6).

Table 6. Experience of turnover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working form N(%)

Classification	turnover experience		x2	p-value	
	yes	no			
age	<25	23(31.5)	50(68.5)	43.33****	0.000
	25-30	85(63.4)	49(36.6)		
	30-35	45(83.3)	9(16.7)		
	more than 35	12(92.3)	1(7.7)		
marriage	marriage	57(89.1)	7(10.9)	29.00****	0.000
	unmarrige	108(51.4)	102(48.6)		
education	junior college(2)	14(77.8)	4(22.2)	4.62	0.323
	junior college(3)	124(57.9)	90(2.1)		
	university(4)	22(64.7)	12(35.3)		
	graduate	1(33.3)	2(66.7)		
	others	4(80.0)	1(20.0)		
Occupational life	long	46(60.5)	30(39.5)	0.00	0.949
	short	119(60.1)	79(39.9)		
annual income	less than 2500	88(52.4)	80(47.6)	10.41****	0.001
	more than 2500	75(72.1)	29(27.9)		
pay	satisfaction	30(62.5)	18(37.5)	0.18	0.672
	dissatisfaction	132(59.2)	91(40.8)		
working institution	dental clinic	102(71.8)	40(28.2)	17.91****	0.000
	dental network	36(45.0)	44(55.0)		
	dental hospital	23(50.0)	23(50.0)		
	Others	4(66.7)	2(33.3)		
career	<1 year	5(13.5)	32(86.5)	56.21****	0.000
	1-3 year	32(51.6)	30(48.4)		
	3-7 year	66(65.3)	35(34.7)		
	7-10 year	32(76.2)	10(23.8)		
	more than 12 year	30(93.8)	2(6.3)		

***p<.001

Table 7. Correlation of awareness for the curricular subjects in dental hygienist

	job relationship						job practical use						job weight						
	B	O	P	C	D	M	B	O	P	C	D	M	B	O	P	C	D	M	
job relationship	B	1	0.582***	0.400***	0.166**	0.183**	0.385***	0.619***	0.452***	0.250***	0.061	0.114	0.286***	0.555***	0.385***	0.251***	0.016	0.035	0.252***
	O		1	0.624***	0.443***	0.512***	0.578***	0.395***	0.696***	0.405***	0.359***	0.422***	0.419***	0.320***	0.554***	0.461***	0.314***	0.384***	0.378***
	P			1	0.489***	0.422***	0.594***	0.279***	0.423***	0.658***	0.360***	0.355***	0.415***	0.224***	0.406***	0.649***	0.336***	0.322***	0.395***
	C				1	0.687***	0.450***	0.044	0.360***	0.398***	0.662***	0.537***	0.308***	0.090	0.338***	0.480***	0.615***	0.548***	0.340***
	D					1	0.567***	0.083	0.459***	0.376***	0.620***	0.782***	0.407***	0.093	0.378***	0.449***	0.530***	0.764***	0.427***
	M						1	0.355***	0.460***	0.457***	0.401***	0.493***	0.720***	0.346***	0.383***	0.474***	0.351***	0.477***	0.658***
job practical use	B							1	0.563***	0.350***	0.057	0.137*	0.387***	0.570***	0.325***	0.218***	0.042	0.028	0.281***
	O								1	0.460***	0.361***	0.508***	0.431***	0.358***	0.635***	0.403***	0.307***	0.377***	0.360***
	P									1	0.437***	0.411***	0.505***	0.216***	0.404***	0.636***	0.337***	0.312***	0.361***
	C										1	0.375***	0.084	0.268***	0.405***	0.699***	0.662***	0.364***	
	D											1	0.109	0.359***	0.389***	0.520***	0.771***	0.448***	
	M												1	0.288***	0.349***	0.423***	0.288***	0.378***	0.666***
job weight	B													1	0.547***	0.293***	0.145*	0.181**	0.431***
	O														1	0.550***	0.385***	0.442***	0.491***
	P															1	0.528***	0.464***	0.533***
	C																1	0.693***	0.421***
	D																	1	0.553***
	M																		1

*p<.05 **p<.01 ***p<.001

B: oral physiology, O: oral biology, P: public oral health, C: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D: clinical of the dentistry, M: management of the dentistry

3.7. 교과목 인식의 상관성

연구대상자의 교과목별 인식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직무관련, 직무수행활용, 직무수행 비중에 따라 교과목을 구강생리학, 구강생물학, 공중구강보건학, 임상치위생학, 치과임상학, 치과관리로 구분하여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나 직무관련과 직무수행활용, 직무수행과 직무수행 비중에서 상호간 구강생리학과 임상치위생학 및 치과임상학이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활용 간에도 구강생리학과 임상치위생학이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4.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적인 처치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습득하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구강보건전문 인력이다⁴⁴⁾. 이에 전국 79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는 치위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 치위생업무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치위생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업무중심 교육과정인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8). 3년 또는 4년의 치위생(학)과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97%이상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 치과의료 기관에 취업해 임상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⁴⁹⁾.

본 연구에서 교과목별 직무관련, 직무수행, 직무비중에 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직무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목과 직무수행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간에서 구강생리학이 임상치위생학과 치과임상학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직무수행과 직무수행비중에서도 같은 교과목에서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실제 임상현장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기초과목과 임상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구강생리학은 임상에서 치위생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치위생과정을 위한 치위생사정, 진단, 계획, 실행, 평가의 5가지 과정²⁰⁾ 각 단계마다 기초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이미 치위생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그와 더불어 임상에서 치위생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와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와의 차이는 직업기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대한 격차는 직무만족과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진료보조업무에 국한되어 치과위생사의 기대업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윤과 김²²⁾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만족하며 조직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행하는 업무와 기대하는 업무를 조사한 결과 진료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업무는 13.2%에 불과하고 치석제거는 26.4%였다. 희망하는 업무로는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업무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청구 16.7%, 진료협조 14.5% 순이었다. 김과 신³⁾의 연구결과도 진료협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최 등¹²⁾의 연구에서도 예방업무에 대한 기대업무와 수행업무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진료보조업무는 수행업무와 기대업무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행업무와 기대업무간의 격차는 직무만족과 이직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은 경영적인 측면과 인력관리 차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의 기대업무와 수행업무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직업수명에 대해 72.2%의 응답자가 짧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높은 년차의 구인이 적어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승진의 한계성(14.7%), 나이제한(13.1%), 힘든 직업이어서(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서울시치과외사회에서 조사한 결과²³⁾에 따르면 개원가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 이하가 39.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은 5.5%에 불과했다. 또한 원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력의 치과위생사는 2-5년차였다. 누군가의 책임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치과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여 얻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직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1번 이상 이직을 경험 하였다. 고 등¹⁰⁾과 정²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직사유는 근무조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급여조건, 동료와의 관계, 치과외사와의 관계 등이었다. 윤 등⁶⁾의 연구에서 직장규모가 클수록 이직횟수는 줄었다고 하였다. 직장규모가 큰 경우 직원복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무조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은 역상관관계

로 특히 임금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고 등¹⁰⁾도 보수나 자기성장성 등의 직무만족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급여만족 여부에 따른 이직 경험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봉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오히려 이직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짧은 근속으로²³⁾ 연봉이 높은 경우 년차가 높게 되고, 그만큼 이직의 경험도 많아지며, 년차에 비해 2500만원 이상이라는 급여가 많은 급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의 급여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월평균급여는 142만원으로 치과의사 394만원에 비해 약 2.8배 낮았고, 치과기공사는 239만원으로 약 1.7배 낮았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109만원으로 치과위생사가 약 1.3배 높았다²⁵⁾.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군내의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위생사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와 이직을 고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보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근무기관으로는 치과의원에서 이직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윤 등⁹⁾의 연구와 일치한다. 작은 규모의 치과의원은 네트워크 치과나 치과병원에 비해 복지나 근무환경, 직급체계 등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교과목 인식과 직무관련 상관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업기대와 관련된 요인의 선행논문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이직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에서 원인을 치위생(학)과 교육과 임상과의 차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만 국한된 조사였으며 좀 더 구조화된 설문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남았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임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치위생(학)과 교육이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편의 추출한 수도권지역의 치과병·의원 274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치위생과 교과목과 직무관련인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직무기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개인 및 직무관련 특성으로 연령은 25~30세 미만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76.6%였다. 학력은 78.1%가 전문대(3년) 졸업이었다. 치과위생사 근무경력 4~7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하는 기관으로는 치과의원이 51.8%로 절반이상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근무 조건과 이직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봉이 2000~25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82.3%가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이직경험으로는 60.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유는 31.7%가 근무조건 때문이었으며 13.2%는 급여조건, 9.2%는 동료와의 관계였다.

3.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은 72.3%가 짧다고 하였으며 이유로는 높은 년차 구인이 적어서 32.7%로 가장 많았고, 승진의 한계성이 14.7%, 적은 보수가 6.4%였다.

4. 치과위생사의 개인적 특성과 근무형태에 따른 이직경험의 차이를 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결혼유무, 연봉, 근무기관, 치과위생사 경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이직경험이 적은 집단은 25세 미만인 연령과 1년 미만의 치과위생사 경력이었으며, 이직경험이 더 많은 경우는 기혼자와 연봉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였다.

5. 각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분류한 교과목과 직무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무상관성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나, 직무관련과 직무수행활용, 직무수행비중에서 구강생리학과 임상치위생학, 치과임상학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교육과 치과위생사의 직업기대에 관한 관련성을 교과목과 임상업무와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학교교육과 임상업무의 차이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Harren V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 Vocation Behav* 1979;14(2):119-133.

2. Yoon HS, Kim YS. A study on perceived value of work having effect on organizational attitude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8(3):65-72.
3.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8(3):161-175.
4. Kang OH.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leave of dental hygienists at dental clinics. *J Dent Hyg Sci* 2006;6(2):107-111.
5. Choi HN, Lim SR, Cho YS.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973-981.
6. Yoon MS, Lee KH, Choi MS.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06;6(3):147-152.
7. Ju OJ, Kim KS, Lee HO.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among dental hygienists in the region of J. *J Dent Hyg Sci* 2007;7(4):251-256.
8. Statistics Korea. Report on the social survey. <http://kosis.kr> 2009.
9. KDAnews. <http://www.kda.or.kr> 2010(8).
10. Go EJ, Cho YH, Yoon HS. Relative factors intent to leave for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9(4):644-658.
11. Kim JH, Kim HY, Lee SK, Cho YS, Park YD. A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and manpower among dental auxiliary personnel in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8;32(4): 540-550.
12. Choi HN, Bae HS, Cho YS. Effect of gap between expected job and performed job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1;11(5):463-469.
13. Saks AM, Ashforh B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formation source, applicant perceptions of fit, and work outcome. *Pers Psychol* 1997;50:395-426.
14.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http://www.kdha.or.kr/>
15. Yang J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0;24(3): 205-216.
16. Ha MO, Youn HJ.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dental hygienist in gwangju. *J Korean Soc Dent Hyg* 2010;10(5):807-817.
17. Hwang MY, Won BY, Shin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ental hygienist job awareness and view of college courses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6):939-949.
18. Lee H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9(4):808-823.
19. Dental Today. <http://www.dttoday.com> 2011(9).
20. Darby ML, Walsh MM.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3rd ed. Canada: Saunders;2010:1-23.
21. Lee SY, Choi HN. Analysis of case reports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5):749-758.
22. Yoon HS, Kim YS. A study on perceived value of work having effect on organizational attitude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al Hyg Educ* 2008;8(3):65-72.
23. Dental News. <http://www.dentalnews.or.kr> 2012(3).
24. Jung YH. The study on determinants for changing employment positions among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al Hyg Educ* 2003;3 (2):183-196.
25. Han SG, Park CS, Jeong YG, Choi DS, Kim GH.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KRIVET job prospect index. Seoul:Kor Res Insti Vocat Educ Train;2006:183-198.